

■ 아프리카 선교소식 : 이석로, 송재은 선교사 2007년8월-2007년12월

■ EAPTC / P.O. Box 3774 / Nairobi 00506 Kenya / Tel & Fax: 254-20-2730940 / e-mail: eaptc@eaptc.org / www.eaptc.org

“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 ” < 93:6 >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께,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인 이곳 아프리카의 선교사역이 시작된 지 13년째로 접어듭니다. 그동안 이곳 아프리카에서의 우리의 삶과 사역은 때때로 퍼즐을 맞추어가는 듯 합니다. 퍼즐조각들이 하나씩 맞추어질 때면 몹시 기뻐하다가도 잘 풀리지 않는다 싶으면 금세 답답해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늘 적절하게 채우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당신의 종들을 어루만지

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며 배운 많은 진리 중 하나는 바로 ‘문제가 없이는 사역도 없다 (no problem, no ministry)’는 것입니다. 한 사역자가 아름답게 성장한다 싶으면 다른 사역자에게 문제가 생기고, 이 교회가 잘된다 싶으면 저 교회가 문제가 있고, 케냐 선교회가 이젠 괜찮다 싶으면 우간다 선교회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번은 답답해서 주님께 ‘왜 이렇게 계속 이곳저곳에 문제가 있습니까? 좀 문제없이 사역할 수는 없습니까?’하며 하소연을 했더니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렀지’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저 입술을 봉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듯 같은 경험을 몇 번씩 되풀이하고 나서는 또 하나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문제에 좀 익숙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굴하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하며 제자삼아 가르치며 성숙케하여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소명(마태복음 28:19-20)에 소홀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바로 일보다는 나를 부르신 주님과 그분의 부르심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요.

이러한 노력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한 달은 유치원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교사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이 헌신되어야 유치원 학생들이 유년시절에 주께 헌신함을 강조하며 심혈을 기울여 교사들을 훈련하였습니다. 연이어 10월 초에는 미국 Seattle에 있는 저희 파송교회에서 목사님을 비롯한 4분이 이곳에 단기선교를 다녀가셨습니다. 그동안 EAPTC가 확산된 아프리카 일곱 나라들로부터 집결한 지도자들 약 100명이 모여 가진 3일간의 선교집회를 통해 전례없는 팀웍과 성장을 다짐하는 참석자들의 고백 속에 저들과 함께 더 큰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회의 마지막

막 날인 10월 6일에는 졸업식을 겸하여 가짐으로, 그동안 어린이사역 부문, 사역자훈련 부문, 신학훈련 부문, 선교사훈련 부문에서 훈련받고 각자의 일터로 나아가는 졸업생들의 뜨거운 감사와 축하객들의 넘치는 격려로 집회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10월 이후로 새로 이사한 Nairobi 본부에서 사역자훈련원의 강의는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사역자훈련원의 신학부문에서 계속하여 '조직신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잠비아의 Hewe 사역자훈련원 그리고 케냐의 Ongata Rongai 사역자훈련원, Mt. Elgon 사역자훈련원의 졸업식들이 각기 9월과 12월중에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 감사한 일은 지난 4년간 EAPTC 선교사로 탄자니아에서 수고하며 사역자훈련원을 Moshi지역에 개원하고 그동안 졸업생들과 함께 세 교회를 개척한 Cletus Tukai 선교사님의 목사 안수식을 10월 7일에 가졌습니다. 땀이 비오듯하는 무더운 탄자니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이어진 세미나와 집회를 통하여 은혜를 갈구하는 그곳의 우리 성도들의 열정이 이곳 케냐에서 Moshi를 방문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였습니다. 이튿날에는 탄자니아 맛사이 지역에 개척되어 현재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는 지교회를 방문하여 격려하며 교제하고 돌아왔습니다.

7월말에 예정이었던 우간다 교단의 세미나는 사정상 11월로 연기되어 11/23-27에 케냐 사역자훈련원 본부책임자인 Nicholas Alalia목사와 함께 강사로 섬기고 왔습니다. 우간다 동부 Sironko에서 열렸던 이번 모임에는 우간다 교우들이 연합하여 찬양과 말씀의 시간을 가지는 한편 지난 8년간의 우간다사역을 재점검하는 공개토론회도 아울러 가졌습니다. 조만간 새로운 리더쉽을 선거를 통해 발굴하고, 2008년도부터는 우간다 사역자훈련원을 더욱 강화함으로 연합과 비전을 새로이 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문화, 관습, 언어가 다른 곳에서 섬길 뿐이지 선교사역도 그 원리와 철학은 어느 사역이나 동일합니다.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교사는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목회자의 역할이 장기적이고 정적이라면 선교사의 역할은 아무래도 단기적이고 동적입니다. US Center for World Mission의 Ralph Winter 박사가 주장한 선교의 4발전단계 (Pioneer, Parent, Partner, Participant) 중 현재 우리는 Participant 단계에 와있습니다. 10여년 전만 해도 우리는 부모의 심령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치며 교회나 단체들을 형성하게 하였습니다. 거의 매 주일마다 지교회들을 돌며 설교했고, 일년에 한차례씩 있는 큰 연합집회에서는 선교사들이 주로 강사가 되어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일은 점차적으로 뒤에서 조언하며 기도해주는 쪽으로 들어섰고, 이제는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다른 현지인 리더쉽을 인내하며 섬겨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주님이 손수 심으시고 키워가시는 이곳 아프

리카 선교의 나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언젠가 완성될 이 아름다운 선교의 작품을 매일마다 기도 속에 그리며, 2008년도도 우리는 은혜의 바다를 향해 힘껏 노를 저어 나아가려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배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항해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또한 이 배가 천국 항구에 도착하는 그날에 우리가 함께 받을 큰 상급을 그려봅니다. 여러분과 함께 수년전 심겨진 아프리카의 꿈나무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곱 개 국가에 은혜의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로 성장한 이 선교가 앞으로 더 큰 거목(巨木)이 되어 뻗어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말입니다.

◆ 행사 및 기도 제목들

1. EAPTC 목회자/선교사들, 사역자훈련원들, 유치원, 교회들을 위해 (팀웍과 성장을 위해)
2. 2008년부터는 모든 사역이 더욱 현지인 리더쉽 중심이 되어 성장하도록
3. 1월경에 있을 수단 사역지 방문을 위해 (이 선교사 집회 인도)
4. 어린이 사역을 위한 사무실과 센터 유치원 건물 확보(\$50,000)를 위해
5. Nairobi 사역자훈련원 본부 확장공사(\$12,000)를 위해

2007년도를 마감하면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표출되는 연말연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된 성탄과 희망찬 새해를 기원드리며, 사랑하는 동역자님의 가정, 일터, 교회에 해를 거듭할수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2007년 12월 17일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으로 더 새로워지는,
이석로, 송재은, 진규, 현규 드립니다.

■ 선교사: 이석로, 송재은 ■ 파송: 시애틀 한사랑 교회 (☎ 1-253-813-0909) ■ 소속: EAPTC 선교회

- EAPTC 선교회 미국 연락처 (☎ 703-239-1144)
- EAPTC 선교회 한국 연락처 (☎ 02-6413-2918)
- EAPTC 선교회 케냐 연락처 (☎ 254-20-273-0940)

항 아 리

선교사 아내 이야기

사랑하는 모든 항아리 애독자들에게 성탄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28도를 넘는 뜨거운 12월의 날씨도 온히 생각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와는 거리가 먼데, 케냐는 12월 27일에 국민투표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지역리더들..)가 있어서 두사람 이상이 모이면 온통 선거이야기 뿐이랍니다. 정치적인 신념이나 국민의 안정을 생각하기 보다는 종족간의 다툼이 되어버린 심각한 정치판에 지역교회들까지 끼여서 크리스마스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는 원천이라는 것이지요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것뿐이라는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항상 하는 말들이 사실 요즘 저에게는 멀리 느껴집니다. 머리로 알고 생각으로는 인정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시는 사랑이 가슴에서 부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남자라서 그런지 감정적으로 흔들림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앞선 선교편지에서조차 나타나듯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선교사로서 당하는 위기를 잘 넘기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반면 저는 요즘 권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권태기란 말은 온히 부부관계에서 사용되는 말이지만, 제가 느끼는 권태기는 선교사로서 마땅히 사랑하고 품어야 하는 이 땅과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랍니다. 감히 제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있던 편안하고 안정된 곳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프리카에 올 때에는 선교사로 부르시는 그 분에 대한 순종함과 더불어,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들이 기쁨이었고, 말씀 안에서 변하는 저들로 인해 감격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에게 자신있게 나누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곤 했지요. 종종 저의 연약함과 욕심이 장애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 마음이 가득했기에 항아리 독자들에게 기도요청을 하면서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권태기가 찾아왔나봅니다.

지난 8월에 집안일을 도와주던 자매가 손님들이 맡겨놓은 중요한 물건들을 훔쳐간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믿고 아이들과 집 안의 모든 것을 맡겼던 자매이고, 남편을 여의고 자녀들을 키우는 그녀를 그 동안 여러모로 도와주면서 함께 기도하며 식구같이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경찰까지 동원되어 잃어버린 물건의 일부를 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뇌물을 바라는 경찰들과 거짓말로 일색하는 주위사람들로 인해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선거철이 되면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현금을 강탈(?)하는 경찰들에게 시달리면서 케냐가 너무 싫어집니다. 얼굴색이 조금 하얗다는 이유로 관공서에서 당하는 부당한 일들이나 (대부분 일을 지체하면서 뇌물을 요구하지요) 선교사라는 명목으로 마냥 주기만 해야하는 환경과 사건들이 이젠 지겨워지고 있습니다. 믿고 함께 일하던 현지인 동역자들이 물질 때문에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일들을 겪을 때면 도대체 우리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나이들어 가시는 부모님들께서 손자들을 보고 싶어하시면서 10년을 선교지에서 섬겼으면 이제 그만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재촉하시는 말씀이 핑계가 되어, 이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채 지난 몇 개월을 보냈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지는 달러 환율로 인해 정기적인 선교비가 사역과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이유로, 자라는 아이들과 그에 따른 교육문제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아프리카의 사역과 몇몇의 든든한 현지인 리더들을 구실로, 남편과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아프리카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물론 남편도 같은 일들을 지내면서, 어쩌면 저보다도 더 큰 실망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선교지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를 줄이고 하나님과 결판(?)을 낸다면 남편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가 떠나라고 하기까지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과 사람들이 싫어져서가 아니라, 이 곳에서의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환경과 사건에 쫓겨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한창일 때, 그 때에 하나님이 가라하시면 사랑을 품고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역자로서 남편을 존경합니다. 아내의 생활에 지친 푸념들이 그 소명을 향해 인내하며 전진하는 남편에게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아리 독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제가 이 권태기를 잘 이기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향한 사랑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원수 마귀가 기뻐하는 실패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성탄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 마음에도 위로와 회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